

이런데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린이 정기로 맞아낸 인걸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가슴이 뛰는대 제대 건아야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제주대신문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대표전화 (064)754-2277

news.jejunu.ac.kr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제854호

연예인 빼면 축제 못 여나... 정체성 찾아야

의미있는 행사 취소도 안타까워

네버엔딩 아라대동제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학내 곳곳에서 열렸다. 'Made in Korea'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대동제에는 유학생가오제, 동아리공연, 풋살대회, 아라스타, 스타크래프트 대회, 체협존, 소망거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학생 13개팀이 참가한 '아라스타'는 학생들의 다양한 장기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관객들과 심사위원들 모두 참가자들의 끼를 보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관련기사 3면

장애인체험 행사 역시 좋았던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하이뜸씨(정지호 교 1)는 "시각장애 체험을 해보니 시력이 안 좋은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 다양

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한 유학생 가오제도 열려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다. '다문화가정 Green 캠퍼스 행복나들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과 연락이 끊겨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 'Made in Korea'라는 부제를 달고 애국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학생들이에게 제대로 된 호응을 받지 못했다. 최동준 씨(철학 1)는 "주제가 있는지도 아예 몰랐다는 학생들도 많다"며 "부제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홍보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용탁 총학생회장은 "자체적으로도 부제에 맞는 홍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번 대동제의 나라사랑 메시지를

다른 행사에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동제 비용은 스폰서를 제외한 기성회비(등록금 중 학교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로만 총 2억2130만원이 들었다. 그 중 연예인 초청비용은 7655만원으로 총 지출의 34.6%를 차지했다. 팀당 평균 1531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작년 대동제 연예인 초청비용은 6700만원이었다. 총학생회는 "시대가 많이 변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 가수 공연은 필요하다"며 "어떤 학생들은 연예인 초청비용에 대해 불평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번 대동제에 어떤 가수가 오는지 기대하고, 더 인기 있는 가수들을 초청하라며 불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연예인 공연을 보기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캠퍼스를 둘러보며 입시설명회 못지않게 학교 홍보효과가 뛰어나

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제가 너무 가수 중심으로 열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양선아(정치외교 1)씨는 "등록금에서 쓰이는 축제비용 가운데 연예인을 부르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아 많이 아깝다"며 "차라리 그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교 복지에 더 힘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나 부산외대와 같은 대학의 총학생회는 연예인 비용을 줄여 절약한 예산 일부와 운영수익금 등을 모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현용탁 총학생회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비율이 높은 편이고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장학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며 "학교와 협의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지 수습기자



지난달 30일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이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직원들에게 제주대 배지를 달아주며 'Pride Up 제대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Pride Up 제대인' 통해 자긍심 높여요

제주대가 구성원의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에 나섰다. 제주대는 제주대 구성원으로서 긍지(Pride)를 한 단계 높이고(Up), 자긍심과 애교심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Pride Up 제대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 첫날 오전 허향진 총장을 비롯해 처장 및 학부위원, 보직교수,

홍보대사 학생들은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제주대 배지를 달아주며 캠페인 취지를 알렸다. 또 이날 점심시간에는 홍보대사들이 학생회관 식당에서 'Pride Up 제대인' 스티커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벌였다. 'Pride Up 제대인' 캠페인은 지난 2월 제주대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이 제정됨에 따라 개교 59주년을 맞아 대학 구성원의 자긍심과 애교심 함양,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향진 총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홍보하는 물론 제주대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애교심 함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자신문 <The Islander>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발행

10일부터 4면 격주간 체제

40년 전통의 제주도내 최초의 영자신문 <The Islander>가 10일자부터 타블로이드판 4면 체제로 격주간 발행한다. 종전 영자잡지 형태의 계간 발행에서 벗어나 속보성을 위해 격주간 타블로이드판형으로 전환하고, 내용과 편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영문뉴스를 통한 정보 전달과 영어의 실용화 목적을 제시한다. 타블로이드 판형은 신문을 펼쳐 읽기 편하고 지면이 한눈에 들어와 가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10일자로 선보일 영자신문은 타블로이드 컬러판 4면으로 3000부 발행되며, '개교 59

주년 기념식' 기사를 비롯해 '그 시절 대학축제는' '옛 대학이 있던 자리 지금은' '개교 59주년 축하메시지' 등 학교 소식 및 행사 안내, 연구, 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기사가 실린다. 또 학생들의 축하글 등 오피니언을 담아 발간한다. 김소현(영문4) 대학부장은 "제주대에 관심이 있는 도내외 학생 모두에게 학교 소식을 전하는 정보와 의사소통의 광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호성(법학전문대학원) 영자신문 주간은 "영자신문은 대학 뉴스를 읽으면서 영어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

는 좋은 교재이지만 기사를 영어로 읽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쉽게 손에 잡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발행체제를 잡지 계간에서 타블로이드신문 격주간으로 바꿔 영문뉴스를 통한 정보 전달 기능을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학교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자신문 <The Islander>는 지난 1970년 12월 1일에 창간돼 1992년까지 타블로이드판으로 4면과 8면을 격월로 발행해 오다 1993년부터는 스탠다드판으로 판형을 바꾸었다. 이후 1997년 5월 1일자 188호부터 잡지 형태로 전환했으며, 지난 3월 243호를 발간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10일 선보일 영자신문 <The Islander>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역인재육성사업 선정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오승은 교수)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는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이 사업으로 여행상품기획자 양성과정, CS Leaders 자격 과정, 기업세무·회계 실무자 양성과정 등 4개 프로그램을 6월에서 7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과정수료자는 학점인정과 함께 검증을 거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알림

제31회 백록문학상 소설 부문 추가 공모

제주문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백록문학상' 제31회 출품작을 연장 공모합니다. 제주대신문 창간 57년을 기념하고, 청년 문학도를 발굴하기 위해 벌이는 이번 추가 공모에는 소설 부문에 학부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31화째를 맞은 '백록문학상'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소설(1인 1편·분량은 자유)
- 접수마감 : 6월 13일(월) 18:00까지
- 발 표 : 제주대신문 855호(7월 6일자)
-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 방문할곳 : 본관 대학원동(취업전략본부) 3층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 문 의 : (064)754-2278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011학년도 하기에절 강좌 수강생 모집안내

중등프로그램

코트	교육강좌명	강사(여름/소속)	강의시간	모집인원	강의사수	학술비	대상
101	사교력 수련	김민아(제주대학교 수학과 교사)	월-금 8:00 ~ 12:00(9월)	40	30	120,000	중등노년

직업준비프로그램

코트	교육강좌명	강사(여름/소속)	강의시간	모집인원	강의사수	학술비	대상
201	가족대동지리	김종석(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수 15:00 ~ 22:00	20	24	96,000	일반
202	복합도출판물기	이선진(제주대학교 제주연구소)	목 15:00 ~ 22:00	20	24	96,000	일반
203	직업(비즈니스)교육	변한도(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수 13:00 ~ 16:00	20	24	96,000	일반
204	학원(비즈니스)교육	변한도(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목 15:00 ~ 22:00	20	24	96,000	일반
205	초보자를 위한 Excel	홍재순(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사)	수 13:00 ~ 16:00	20	24	96,000	일반
206	커리어준비(비즈니스)개론	이덕수(제주대학교학원 담당)	토 10:00 ~ 13:00	15	24	165,000	일반
207	커리어준비(비즈니스)개론	이덕수(제주대학교학원 담당)	토 13:30 ~ 16:00	15	24	165,000	일반
208	월터스칼라기법	김은아(제주대학교)	수 10:00 ~ 13:00	20	24	96,000	일반
209	한자속성(개론)개론	박영희(제주대학교학원 담당)	토 09:30 ~ 12:30	20	24	96,000	일반

생활스포츠프로그램

코트	교육강좌명	강사(여름/소속)	강의시간	모집인원	강의사수	학술비	대상
301	건강운동개론	김영희(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목 14:00 ~ 17:00	20	24	96,000	일반
302	물리치료개론	오만희(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월 10:00 ~ 12:00	20	18	138,000	일반
303	라켓댄스	홍민서(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금 15:00 ~ 18:00	20	16	64,000	일반
304	비디오댄스 개론	김영희(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토 17:30 ~ 19:00	15	24	96,000	일반
305	스킨스쿠버	김영희(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월 10:00 ~ 13:00	20	24	165,000	일반
306	윈드서핑	오윤영(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월 14:00 ~ 17:00	20	24	165,000	일반
307	회화(초급/중급)개론	박영희(제주대학교학원 담당)	수 15:00 ~ 22:00	20	24	96,000	일반

문화예술향상

코트	교육강좌명	강사(여름/소속)	강의시간	모집인원	강의사수	학술비	대상
308	성악(노년/국악)개론	한복순(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월 10:00 ~ 12:00	20	18	64,000	일반
309	오가나	김영희(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수 10:00 ~ 12:00	20	18	64,000	일반
310	한국무용	김영희(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금 15:00 ~ 22:00	20	24	96,000	일반

건강·심성프로그램

코트	교육강좌명	강사(여름/소속)	강의시간	모집인원	강의사수	학술비	대상
401	한방 치유방법	한복순(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	월 16:00 ~ 19:00	20	24	96,000	일반

인문학·교양프로그램

코트	교육강좌명	강사(여름/소속)	강의시간	모집인원	강의사수	학술비	대상
402	개교 59주년 기념	교양학(제주대학교 교사)	수 15:00 ~ 22:00	20	24	96,000	일반

2011학년도 하기에절 강좌 수강생 모집안내

- 수강신청 원서 접수 및 등록기간** : 2011. 6. 7(화) ~ 6. 30(목).
 - ▶ 인터넷 접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nu.ac.kr)
 - ▶ 방문접수
 - ◎ 시간 : 09:00~18:00
 - ◎ 장소 : 평생교육원 행정실
 - ▶ 전화접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수강희망 강좌 등을 접수
 - ▶ 팩스접수 : (064)702-5508로 전송 후 접수여부 전화 확인 요망
- 교육기간**
 - ▶ 중등프로그램 : 2011. 8. 1(월) ~ 8. 12(금) 월~금 10:00 ~ 13:00(주5일)
 - ▶ 일반프로그램 : 2011. 7. 1(금) ~ 8. 27(토)
- 학습비 감면** : 제주대학교 구성원에 대하여 10% 감면
 - ▶ 감면대상자 : 제주대학교 교직원(교수, 직원), 시간강사, 재학생, 제주대학교병원 직원
 - ▶ 감면신청서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대학 소정 양식), 재직증명서(교직원, 병원직원), 경력증명서(시간강사), 재학증명서(학생)
- 학습비 납부 안내**
 - ▶ 등록방법 : 온라인 무통장 입금(농협 954-01-024748 제주대학교)
 - 학습비는 수강신청자 성명으로 입금하며 부득이 수강생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할 시에는 행정실로 전화 요망
 - * 감면 대상인 경우 학습비 전액 납부 후 차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감면액을 반환
- 선발방법** : 원서접수 후 등록(학습비 입금) 순으로 선발함.
- 학 습 비** : 교육강좌별 학습비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가. 매 강좌 교육시간 2/3이상 출석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나. 수강생 등록일원에 따라 교육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비 전액 환불
 - 다. 강의장소 및 강의시간은 개인별로 연락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함.
 - 라. 학습비 이외의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자격시험 응시료는 별도 납부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및 행정실 ☎(064)754-2704 ~ 5로 문의 바람.
- 문의처**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 TEL (064) 754-2704 ~ 5, FAX (064)702-5508, 홈페이지 (http://psg.jejunu.ac.kr)

2011학년도 하기에절 교직원 강좌 수강생 모집

- 강좌명** : 건강과 자세교정
- 수강신청 원서 접수 및 등록기간** : 2011. 6. 7(화) ~ 6. 30(목).
 - ▶ 전화접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수강희망 강좌 등을 접수
 - ▶ 팩스접수 : (064)702-5508로 전송 후 접수여부 전화 확인 요망
- 교육기간** : 2011. 7. 7(목) ~ 7. 28(목), 매주 목요일 18:30 ~ 21:30(4주)
- 대 상** : 제주대학교 교직원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학 습 비** : 무료
- 강의장소** : 평생교육원 강의실
- 강의 내용**
 - ▶ 1주 : 건강과 자세
 - ▶ 2주 : 목과 자세
 - ▶ 3주 : 허리과 자세교정
 - ▶ 4주 : 골반과 자세교정
- 문의처**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 TEL (064) 754-2704 ~ 5, FAX (064)702-5508, 홈페이지 (http://psg.jejunu.ac.kr)



바탕은 가릴, 늦었다 생각 말고 기회있을때 바탕을 놓치지 마. 생활하면서 제주대에도 평생교육원

아라대동제 27일 폐막... ‘빛속 축제’ 마무리

차량혼잡·잔디훼손 고질적 문제

대학 캠퍼스가 매년 대동제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교통·잔디·쓰레기 등의 고질적 문제는 대안도 없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큰 행사마다 나타나는 캠퍼스 교통 혼잡 문제는 이번 대동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관객들이 몰고 오는 차량과 노점상 차량 때문에 정문에서 캠퍼스 내부로 올라오는 길가는 매우 혼잡했다. 총학생회와 관리실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차량에게 지정주차를 요청했지만 잘 이행되지 못했다.

축제가 끝난 다음날 잔디광장에는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스나 주점을 열었던 학생들이 물품만 수거하고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은 채 버렸고, 축제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축제가 끝나자 귀가하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결과 축제가 끝나고 난 뒷정리는 총학생회와 환경미화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졌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행사를 즐기고 난 뒤 조금만 더 정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동제가 끝나 참가자들에게 추억이 남았다면 잔디광장에는 상처만 남았다. 3일 내내 비가 이어져 흙이 비를 머금은 데다 그 위를 사람들이 오고갔기 때문이다. 축제 후 잔디광장은 진흙탕이 됐고 심한 곳은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지금은 훼손된 잔디광장에 300만원의 들어 모래를 뿌려놓은 상태다.

강민성씨(인문홍보 1)는 “잔디광장에 들어갔다 나왔다니 신발이 엄청 더러워졌다”며 “축제마다 잔디가 이렇게 훼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동제가 끝난 다음날 진흙투성이가 된 잔디광장.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축제 때 비만 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사실상 대안이 없어 차선책으로 차량은 잔디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공간상의 제약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총

김명지 수습기자

“제주청년들에게 자긍심 찾아주자”

고성규 엘피온 사장 특강

“제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 합니다.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뛰든지 도전해보세요.”

지난달 20일 취업전략본부가 주최한 CEO특강에서 고성규 엘피온(주) 사장의 말이다. 고 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이양화학(주) 대표이사 사장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 사업가다.

그는 자신의 경영안목을 통해 본 제주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곳이라 극찬했다. 고 사장은 “제주 주변에는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가 60여개나 위치해 있다”며 “특히 서울과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국제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 비행 거리에 있는 중심지”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제주를 다듬어지지 않은 명품에 칭했다. 그는 “제주에는 꽃자왈과 한라산, 쪽빛 바다 등 청정의 자연을 가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레, 제주방언, 해녀 등 제주가 가진 문화적 특색도 제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제주의 성장전략을 일류기업의 조건을 통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사장은 첫째로 도민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일류기업은 직원들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생각과 자부심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Pride를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사람들, 제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그는 제주도민과 리더들 간의 소통과 배려도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과 구성원의 끈끈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기업은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며 “기업 구성원 간의 신뢰는 상품 구매자와 투자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그러한 과정은 제주도 마찬가지”라며 “제주도민들 간의 신뢰는 제주를 찾으려는 사람과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해준다”고 답했다.



고성규 엘피온(주) 사장

마지막으로 제주라는 곳이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필요가 없다”며 “정말 좋은 기업을 그 구성원들이 행복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 훌륭한 삶의 터전이기보다는 행복한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제주의 미래는 제주의 청년 주역들에게 달려있다고 제주의 가능성을 보고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보배 기자

2012학년도 입시설명회 본격 가동... 대전지역 첫 개최



지난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2학년도 입시설명회가 열렸다.

제주대가 대전지역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대전에서 입시설명회를 여는 등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설명회가 5월 6일 영주고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우수 신입생 유치와 안정적인 대학입학지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입시설명회에서는 우리대학에 대한 홍보영상과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 전형, 일반수시전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수시 입시설명회는 도내 인문계·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방문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입시설명회는 △5월 6일 영주고 △5월 13일 중앙고, 남주고 △5월 14일 대기고, 중앙여고 △5월 16일 성산고 △5월 17일 제주여상 △5월 18일 대정여고 △5월 19일 대정고 △5월 21일 서귀여고 △5월 23일 표선고 △5월 24일 서귀고, 제주고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일정은 △10일 남녕고, 한림고 △11일 삼성여고 △14일 애월고 △16일 오현고 △18일 사

강보배 기자

값진 땀방울을 얻기위한

농촌봉사활동 진행돼

모두들 취업 준비로 바쁜 요즘, 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땀방울을 얻으려 학생중앙자치구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농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11학년도 학생농촌봉사활동은 지난달 5일 해양과학대학을 시작으로 지난 5일 총학생회와 인문대학까지 이뤄졌다.

각 학생중앙자치구와 단과대학 학생회 주체로 열린 농촌봉사활동은 △해양대 구좌읍 월정리 5월 5~7일 △자연대 안덕면 사계리 5월 19~21일 △총대의원회 대정읍 일과리 5월 20~22일, 법정대 안덕면 사계리 5월 20~22일, 공과대 한경면 고산리 5월 20~23일 △경상대 대정읍 신도리 5월 27~29일, 사범대 대정읍 상모리 5월 27~29일 △총학생회·총여학생회 한림읍 금악리 6월 3~5일, 인문대 한경면 판포리 6월 3~5일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에는 총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지역 농촌에 일손을 도왔다.

앱 창작터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가동

앱(App) 창작터(센터장 이상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공과대학에서 문을 열었다.

앱 창작터는 스마트폰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스마트폰 앱 개발 교육과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창작터는 앱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삼성전자, LG전자, HP,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국내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강사들과 대학 교수가 담당한다.

창작터에서 운영할 교육은 ▲기본과정=△iOS, △Android, △바다(각 140시간) ▲전문과정=△HTML5+CSS기반 아이폰 앱 개발, △jQuery를 이용한 앱 기초, △Objective-C2.0과 아이폰 개발 플랫폼, △iPad 앱 개발, △네트워크 기반 아이폰 앱 개발, △오픈 소셜 기반, 웹기반 앱 개발, △트위터 클라이언



지난달 30일 공과대학에 앱 창작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트 개발, △클라우드(구글 앱엔진)통합 개발, △cocos2d를 이용한 2D게임 개발, △SIO2와 플랜더를 이용한 3D게임 개발(각 20시간)으로, 플랫폼 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iOS와 Android는 오는 여름방학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 창작터에서는 앱 창업동아리도 운영한다. 창업동아리에 참여하는 팀은 약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창작터는 프로그램 경진대

회 및 전시회 참가, 앱 등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앱 개발기획과 교육을 담당하는 변영철(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요즘 주목받는 앱 산업을 가르쳐 주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 IT산업의 발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앱 창작터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년간 5억7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장호주 수습기자

“문화교류 통해 제주·오кина와 공통의 아픔 나눴요” “3D 적용 관광지도 개발... 우리는 청년 CEO”

‘영 리더스 컬처 팀’

국제화 시대,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어려운 국제교류를 대학생들만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팀이 있다. 이들은 제주대 학생 12명과 관광대학생 1명으로 구성된 ‘영 리더스 컬처 익스체인지 프로젝트팀’이다.

“오кина와 학생들에게 제주를 알리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제주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들이 대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곳은 일본 오кина와다. 올해 2월말에는 오кина와에서 32명 학생들이 찾아와 문화교류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이들은 오кина와 대학생들에게 제주도의 지역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발표를 진행하고, 각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직접 요리하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지나쳤던 제주의 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교류는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죠”

문화교류를 하면서 이들은 한반도 최남단의 위치한 제주도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кина와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매우 놀랐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요소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제주와 오кина와는 전쟁의 아픔을 품고 있어 동질감을 느껴요”

오кина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치열한 격



대학생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영 리더스 컬처 익스체인지 프로젝트 팀

전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아픔을 오кина와는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어두운 역사를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획서를 만들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도 좋은 경험이 된다고 말한다.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서 제주가 세계 속에서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대학생들 사이에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지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제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보배 기자

‘티는사람’ 창업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토익이나 자격증 관련 책을 붙잡는 요즘 제주만의 독창적인 관광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창업에 나서는 학생들이 있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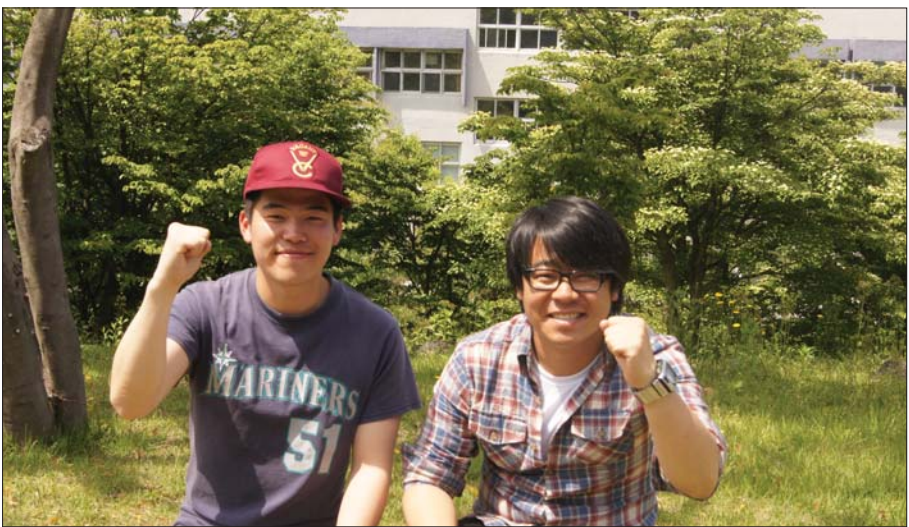
주인공은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센터장 장성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T=사람’을 창업한 변용수씨(경영정보 2011년 졸업), 이금재씨(관광개발 4), 이진우씨(관광개발 4), 오준영씨(관광개발 4)이다.

이들은 “튀는 사람과 T=사람이 주는 언어유희로 짓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T에는 유행을 선도한다는 Trend, 재능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Talent, 관광 사업을 뜻하는 Tourism 등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라고 했다.

작년 11월말 우연히 팝업(Pop-up)에 흥미가 생겨 이를 응용해 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되어 공모전을 준비하던 중 이를 이용해 지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출품했는데 상도 받고 반응이 뜨거웠다. 또 그러다보니 사업적으로 구상해봤는데 충분히 시장에서도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단순한 흥미에서 사업으로 커졌다”고 소개했다.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



왼쪽부터 이진우(관광개발 4), 오준영(관광개발 4)씨 T=사람 창업 멤버.

낼 수는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바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소비자에게 팔아야하고 팔기 위해선 대량생산이 필요한데 아직은 모두 수작업을 거치고 있어 대량생산이 힘든 것이다. 또 수작업으로 인한 판매단가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을 꼭 찾아내겠다는 열정을 보였다.

또 이들은 그들만의 사업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개발학도로서 제주도의 관광 콘텐츠가 독창적이지 못하고 하나하나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지금 제주도 관광산업은 ‘먹고 구경하는 관광’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깨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지도를 먼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보여주고 이벤트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시켜겠다는 야심찬 구상도 하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본인들처럼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들도 한때 다른 이들과처럼 스펙을 쌓기 위해 책과 연필을 손에 쥐고 취업을 고민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스펙에 얽매인 학생들에게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자신만의 루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시야를 넓게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탐색해보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조언했다.

김명지 수습기자

미생물이 없다면 인간도 없다... 질병치료하고 수질 깨끗하게

악슬기고

미생물을 위한 변론

미생물에 대한 인식

나는 미생물관련 전공과목(미생물학, 균학 등)을 강의할 때 첫 시간에 거의 예외 없이 미생물과 관련된 단어들(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대장균 등)을 제시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는 한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특히 '대장균'이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익숙하다고 하면서도 나쁜 미생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물으면 특별한 이유는 없이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인식의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미생물'이라는 생물집단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생물이라는 내용보다 대체로 질병이나 부패 등과 관련된 해로운 생물로서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에 보도되고, 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대장균'이 어떤 미생물인지 살펴보자면, 대장균은 원래 온혈동물의 대장 속에 터를 잡고 서식하는 세균으로서 서식지를 제공하는 동물에게 비타민 등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 주거나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등의 유익을 줌으로써 서식지를 제공해주는데 대한 신세를 갚는다. 숙주동물에 대한 대장균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동물(돼지 등)의 다 자란 태아를 제왕절개를 통하여 무균적으로 출산하게 함으로써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무균동물을 만들어 무균막이로 사육하여 대장에 대장균이 없게 만든 바 그 무균 실험동물은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부패단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수명이 길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즉 대장균은 온혈동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미생물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 유해한 세균으로 오해 받고 있는 데는 두어 가지 이유가 있을 법하다. 그 중 한 가지는 부연설명이 생략된 식품 오염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한 오해의 개연성이다. 특히 하절기가 되면 식·음료 등에서 대장균이 얼마 나왔다는 보건당국 등의 시험 결과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보도는 대개 많은 수의 대장균이 나왔으므로 나쁜 것이라는 흐름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장균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니가 대장균이 들어있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불량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 등에서 대장균의 유무나 그 오염 정도를 검사하는 것은 대장균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대

장균과 동반해서 존재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다.

동물의 장 속에는 무해한 대장균과 더불어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유익한 종류(유산균 등)도 있고 병을 일으키는 콜레라균, 장티프스균, 시겔라균 등도 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의 장 속에는 병원성세균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떤 피검물에 대장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이건 다양한 사람(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즉 보건자도 포함된)의 몸 밖으로 배출된 장내의 분변에서 유래된 세균이 섞여 있다는 말이며 이런 세균들에는 병원성세균도 혼재해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피검물에 어느 수치 이상의 대장균이나 장구균이 있으면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면 왜 피검물에서 직접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지 않고 대장균 검사를 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장균을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병원성 미생물을 직접 조사하는 데는 대장균을 조사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실제 확인을 위한 배양 등에 경비가 많이 들며 판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 화급을 다루는 경우는 시간이 절대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처럼 특정 생물의 존재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전체의 상황을 이해하게 될 때 그 특정 생물을 '지표생물'이라고(‘쉬리’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은 1급수라고 판정한다면 ‘쉬리’가 지표생물이된다.) 대장균의 경우 '지표미생물' 또는 '지표세균'이라고 부른다.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대장균의 경우 '지표세균'으로 총체 이용되었지만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이 대장균은 '유해한 세균'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 대장균으로서의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장균 중에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0157:H7같은 변이주가 더러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인류의 미래와 미생물

여기에서부터 '미생물'이라는 존재는 과연 지구생태계나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미생물은 대체적으로 그 크기가 작아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는 생물들

이지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은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끄는 반면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다. 미생물도 그 크기는 작지만 엄연한 생물이기에 생육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이 영양분의 흡수 방식에 따라 살아있는 다른 생물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인체나 가축, 농수산물에 발생하는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미생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생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사람으로부터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미래는 몇 가지 요인에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 식량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식량부족으로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2,000만에서 3,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통상의 농작물 재배법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어렵다는 계산을 한다. 앞으로의 대안은 짧은 수확기간과 좁은 공간으로도 다양 생산이 가능한 미생물의 배양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다. 현재까지 식량자원의 후보미생물로는 효모 등의 균류와 클로렐라 등 집약적으로 배양할 수 있고 식량으로서의 영양가치가 매우 높은 단세포 미생물들이 있다. 이미 이러한 미생물식품이 소량이지만 해도 유통되고 있거나 앞으로는 이러한 미생물로 가공한 쌀이나 고기 등을 일상으로 섭취할 날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잠깐 방향을 바꿔서 일상생활과 미생물을 연결해 보자. 우리의 가정에서 세탁은 일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다소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빨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양잿물에 삶고 두들기는 어려운 일을 하였다. 지금은 어떤가? 단백질분해효소 등 때의 성분을 분해하는 다양한 효소를 세제에 첨가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세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도 역시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맑은 여러 가지 과일 주스도 그렇고 식물성분이 첨가된 화장품도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하여 고급스러운 양질의 제품을 만든다. 직물이나 가죽, 펠트 등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제품의 생산에도 미생물이 생산한 효소가 사용된다.

한편 연료나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도 미생물이 생산하는데, 메탄, 아세톤, 에탄올, 부탄올 등이 많이 생산되어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물질들이다. 특히 에탄올은 다양한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미생물발효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연료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또한 미생물이 생산하는 수소가스도 연료생산의 주요 연구과제이다. 식품이나 공업에 많은 양이 소요되는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 핵산, 구연산, 글루콘산, 젖산 등의 유기산도 미생물이 생산한다.

인류의 미래에 위협요소가 되는 것 중의 하나인 질병 중에 상당히 많은 종류가 미생물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도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생물질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을 위시한 수많은 종류의 항생물질이 미생물로부터 얻어진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항생물질을 만드는 미생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는 백신들도 미생물로부터 만들어지며 현대인의 대표적 질병인 당뇨병도 미생물이 생산하는 인슐린으로 치료하고 왜소증 환자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성장호르몬으로 치료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항바이러스제, 항종양제, 콜레스테롤저해제, 혈압강화제, 면역조절제 등도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며 값비쌌던 스테로이드 물질들이 미생물을 이용하여 값싸게 생산된다.

우리가 섭취하는 수많은 식품들도 미생물의 도움으로 생산된다. 막걸리, 청주, 맥주, 와인, 증류주 등 다양한 알코올음료들이 모두 미생물에 의한 발효로 만들어지며, 치즈, 요구르트, 사워크림 등 발효 유제품도 그렇고, 생선소스와 발효소시지 등도 그러하며, 빵, 발효쌀제품, 감주, 발효차(홍차, 보이차 등), 코코아, 커피원두, 두부, 간장, 된장,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인 김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절임식품도 다 미생물 덕으로 먹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향료나 천연식품보존제, 비타민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귀한 식품들이 미생물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

인류의 미래에 걱정스런 요소 중의 하나인 환경오염도 많은 부분이 미생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에서 생산되는 폐수도 미생물로 처리하고 원유의 오염도 미생물처리로 상당부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나 석탄의 품질을 높이는 탈황도 미생물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농수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농약도 친환경적인 미생물 농약으로 환경도 지키고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생물학의 발달로 훨씬 많은 미생물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런 이



오덕철 (생물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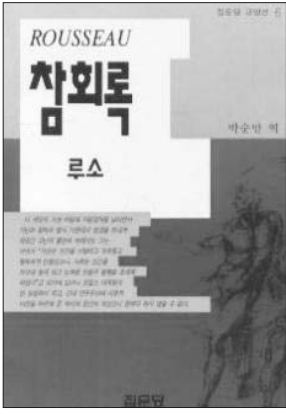
자연예찬과 감성의 해방

서평

나는 늦게야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그와 관련하여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배움은 때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젊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라야 스폰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가 아들·딸 포대인 20대의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아닌 모양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죽으라고 공부해 대학에 왔는데도 공부해요? 그럼 우린 언제 놀아 봐요? 그들은 웃으면서 농삼아 말하지만 내겐 이유있는 항변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루소의 '참회록'을 만난 것은 얼마 쯤은 우연이기도 하다. 교육학을 배울 때 루소는 여러 번 언급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때문이다. 그는 근대민주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교육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대사가가이다. 처음에는 그의 교육사상이 피력된 '에밀'을 읽었으면 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의 모순에 가득찬 생애를 알게 되었고 그의 자서전인 '참회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사상서를 읽기에는 부담스럽고 차선책으로 선택된 것이 '참회록'인 것이다. 도서관에서 '참회록'을 빌려왔다.

루소의 '참회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책이었는데 1부의 두께만도 500페이지는 족히 넘는 대작이었다. 처음에는 이 두꺼운 책을 100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지만 늦게 공부할 시작한 만큼 나의 인내력을 시험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읽어나갔다. 그런데 차츰 이 책에 빨려들어 갔다. '참회록'은 루소 자신의 전기이지만



『참회록』 1·2부
J.루소 지음 / 박문만 옮김

소설 이상으로 사건이 다채롭고 흥미로우며 문체는 감성으로 빛난다. 루소를 낭만주의 문학의 창시자로 일컫는 것도 자연예찬과 감성의 해방이라는 참회록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1부의 내용은 루소가 고향인 스위스를 떠나 평생을 통하여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보랑부인을 만나 학문과 예술에 눈을 뜨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1부의 내용이 밝고 활기에 차있다면 2부의 내용은 시종 무겁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보랑부인과 헤어져 파리에 온 루소는 디드로, 볼테르 등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교류하게 되며 그 영향으로 자신도 저술에 임하게 된다.

루소는 또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몇 개의 오페라를 작곡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게 불행이 다가온다. 그것은 절대 왕정이었던 당시 상황으로선 그의 사상이 너무나 혁신적이었기 때문이다.

앙여머리모 모셨던 보랑부인과 그의 정행각이나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낸 것은 그의 적들로부터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며 위선자라는 공격의 빌미를 주기에 충분했다.

참회록을 통하여 우리는 모순에 가득찬 대사상가의 적나라한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희 행정학과 석사과정

유로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미생물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미생물로 인한 피해도 적잖게 입고 있지만 이익이 되는 일이 훨씬 많기에 다소 장황하게 미생물의 유익한 점을 나열하여 미생물은 해로운 생물이라는 오명을 벗기고 싶은 생각과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식

제주대학교59기수습기자모집

수습기자가되면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원정 취재/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제공)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지함, 컴퓨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직업성에서 보사진 등)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원서마감 : 6월30일

장 소 : 본관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 의 : 제주대 신문사 (754-2277)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론미디어센터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에 땅이 나도록 뛰어도...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뛴니다.

청춘 20대!

가슴뛰는 일상으로 바나나처럼 살까요?

JEJU Univ Media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하는 제주미디어센터

JUMP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대정부 투쟁 시작됐다

반값 등록금 논란, 제주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 등록금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지난 6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갈수록 오르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게 됐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반값 등록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한나라당은 소득계층 하위 50%인 학생들 중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문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은 학생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반면 반값등록금 제도가 정부재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정원도 못 채우는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것은 부실 대학이 계속 존재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그만큼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인 제주대는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비가 싼 편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도움 없이 200만원 상당의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지난 6월 2일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들은 보통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 반값 등록금에 찬성하는 김진영(정치외교 2)씨는 “대학 등록금이 높아질수록 교육 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온다”며 “반값 등록금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인재육성 정책이다”고 했다. 반면 반값 등록

금제에 반대하는 김지은(관광경영 3)씨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을 고려했을 때 좀 현실성 없는 정책인 것 같다”며 “대안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늘리거나 등록금을 줄이더라도 2/3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소득 4~7분위의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있다. 이 저리대출자는 4~5분위의 저리1종과 6~7분위의 저리2종으로 나뉜다. 저리1종 학생들은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4%를 지원받고 있어서 나머지 이자를 지원한다. 저리2종 학생은 정부로부터 1%의 이자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자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자금 지원조례는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원대상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파악한 저리1종은 562명, 저리2종은 392명으로 이 조례의 대상인데 반해 올해 초 도정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은 학생은 297명뿐이다. 이것은 학자금후불제를 적용받은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학자금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국가를 통해 융자받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상환해나가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 조례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학생까지 폭넓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으로 곤란을 겪는 학생들도 한 많기 때문이다.

이승희(행정대학원 석사과정)씨는 “몇몇 학생들의 경우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며 “차상위계층에게는 학비의 몇 프로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서 이자 지원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해모리 기자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글/ 김순재(국어문화원)연구원
그림/ 허용준 특별기자

④ 안네다



*날말풀이
질에: 길에, 안네다: 드리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네다?: 왔느냐? 기어: 그레, 감적: 고구마, 쪼미지나?: 재미있나?, 경헌디: 그런데

항체 없는 젊은층, A형 간염 주의보

기고 현소영 중앙병원 내과장

A형 간염은 간을 주로 침범하여 감염증을 일으키는 A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중간 보고된 급성 A형 간염의 국내 발생 환자 수를 보면 2007년 2,081예, 2008년 7,895예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14,966예가 발생하여 그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100,000명당 30예에 가까운 발생빈도로 우리나라의 A형 간염의 발생빈도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 항체없어 '고위험군'

근래 A형 간염의 발생이 폭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A형 간염의 역학이 선진국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면역을 얻지 못한 소아나 성인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대학병원에 내원한 급성 A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를 보면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 연령은 32.3세 이었고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던 연령층은 30~34세, 35~39세, 25~29세 순으로 과거 연구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역을 얻지 못한 성인층이 고령화 방향으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A형 간염의 증상 및 감염경로

A형 간염의 증상은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침입한 후 약 4주 동안의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양상은 마치 감기 몸살 증세처럼 열이 나거나, 식욕이 감소하고, 구역질 및 구토, 전신적인 쇠약감, 복통, 설사 등과 같이 다른 바이러스성 간염과 유사합니다.

증상 시작 후 3~5주 내에 완전히 회복될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연령과 관계가 깊어 50세 이상에서는 증상도 심하고 합병증도 많아지며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의 빈도가 3%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B형, C형 간염과는 달리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A형 간염바이러스는 우리 몸 속의 간세포 내에서 복제, 증식하여 혈액과 대변을 통해 배출되므로 그 주된 감염경로는 경구감염(대변에서 입으로)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대변을 통해 가족 또는 친지에게 전염되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군대, 고아원, 탁아소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쉬우며 실온에서도 몇 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하므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 없어 예방책 중요

다른 바이러스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연치유되는 질환이므로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하지는 않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이 중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심한 식욕부진이나 구토 증세가 지속되어 탈수 가능성이 있거나 심한 황달을 비롯한 전격성 간염의 의심될 때는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음주는 절대적으로 삼가야 하고 반드시 절대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심한 운동이나 장기간의 육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치료 이외에 급성 A형 간염의 특별한 치료약물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



현소영 중앙병원 내과장

다. 이상과 같이 A형 간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성 간염의 원인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발생 빈도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각종 합병증과 사망 예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경구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손씻기, 끓인 물 마시기)의 유지와 소아 및 항체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A형 간염 기본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대학의 개교 59년을 축하합니다.

한라산소주는 젊은이들이 제주의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제주대학 발전기금을 통해 우수교수를 지원하고 우수학생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소주는 이제껏 한결같이 ‘기업이익(企業利益)의 사회환원(社會還元)’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제주 도민을 위한 지역 발전성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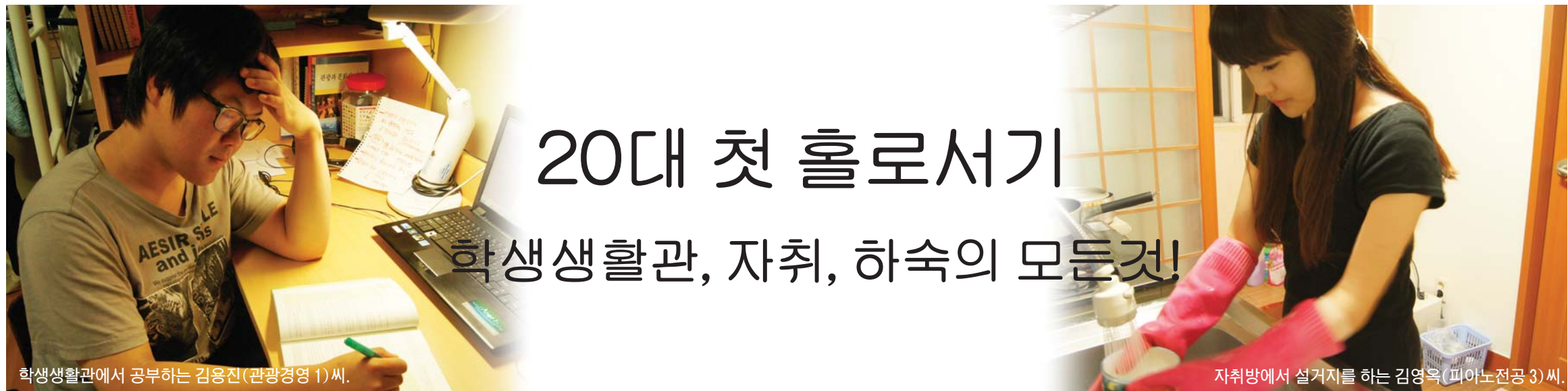
정원정

한라산물 순한소주

제주대학교

2008년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2007년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2008년 세계주류품질평가(MSC) 은상 수상, 2008년 한라산내안 특별장상회의 공식관찬주

(주)한라산



학생생활관에서 공부하는 김용진(관광경영 1)씨.

자취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김영옥(피아노전공 3)씨.

20대 첫 홀로서기

학생생활관, 자취, 하숙의 모든것!

대학생 주거문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대학에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난 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스무살 첫 홀로서기를 시작했던 대학생들은 금세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는다. 어떤 날에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눈에 아른거려서 엄마에게 전화해 ‘폭풍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곧 수화기로 넘어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미어지는 것을 듣고 다시는 우는 목소리로 전화하지 않는 의젓함을 배운다. 풋내기 대학생이 생활의 달인이 되기까지, 어설프지만 제법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그들의 ‘또 하나의 집’을 취재했다. 학생생활관, 자취방, 하숙집에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각 생활의 장단점을 들여다 보자.

학생생활관, 가족만큼 따뜻한 ‘기사뎀’

스무살 첫 홀로서기 터전으로 새내기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곳은 학생생활관이다. 경비아저씨가 있어 자취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학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 아래 사는 정이 돈독히 쌓이면 룸메이트들은 믿음직한 친구가 된다. 분위기가 좋은 방은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도 떠난다. 속칭 ‘기사뎀(기숙사 패밀리를)’이라 불리는 이들은, 혈연, 지연, 학연보다도 든든한 인맥이 된다. 옆방에 사는 친구까지 모인 기사뎀이 한 방에 응기종기 앉으면 방문 앞에 갈비집처럼 신발이 가득 쌓인다. 이들이 가장 단합이 잘 되는 때는 야식을 시켜먹을 때. 늘어나는 뱃살과 줄어드는 용돈에 울상이 되지만 야심찬 밤 친구들이 여럿이 모이면 야식의 유혹을 참을 수 없다. 학생생활관의 최대 단점은 통금시간이 있어 자유롭게 못하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제주시청 주변 대학로에 놀러갔다가도 통금시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일찍 들어간다. 이런 관생들에게 후문의 호프집, 노래방은 최고의 어지트. 통금시간에 맞춰 친구들끼리 간단한 놀이에 안정맞춤이기 때문이다.

외로울 것 같은 타지 생활도 학생생활관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면 따뜻해진다. 김용진(관광경영 1)씨는 “룸메이트들과 한지붕 아래서 한술밥 먹으며 살다보면 가족처럼 가까워진다”며 “가끔은 집이 그림고, 생활관이 집보다 편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 못지 않게 따뜻한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자취, 부모님 그림지만 자유로운 보헤미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춘을 불태우는 자유로운 영혼들은 주로 자취를 택한다. 자취생활에는 통금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술자리에 가도 귀가 시간이 자유로워서 통학하는 학생들과 학생생활관 관생들에게 부러움을 산다. 김영옥(피아노전공 3)씨는 “학생생활관은 일찍 문이 잠기는데 자취방은 밤늦게 피아노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자취가 좋다”고 말했다. 요리 실력이 좋은 학생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해먹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자취생 요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 김치는 찌개, 볶음밥, 각종 볶음에 쓸 수 있어 자취요리의 감초 같은 존재다. 자취생들은 요리 재료를 조금씩 쓰기 때문에 양파나 파 등은 송송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한다. 냉동실에 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먹을 때에는 해동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체육대회나 MT에서 남은 삼겹살과 재료들은 자취생의 일용할 식량이 된다. 요리를 잘 못하는 자취생은 눈물을 머금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기도 한다. 라면이나 참치, 햄, 3분 카레 등은 필수품이다. 슈퍼보다는 마트, 마트보다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요리를 잘 못하거나 ‘귀차니즘’이 심한 학생들은 종종 밥을 굶고 다니기도 한다. 또 바쁜 학생들은 밥을 해놓고도 먹지 못해서 밥술이나 냄비에 애완(?)곰팡이를 키우기도 한다. ‘우웬’ 소리가 절로 나지만 어쩔 수 없다. 조금씩 요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경제한파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후문의 원룸촌에는 생계를 위한 동거가 대세. 방값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친구, 연인들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찰떡궁합이었던 친구나 연인도 함께 살다보면 가끔은 원수가 된다. 청소나 설거지, 공간 사용 등 사소한 불만이 쌓여서 한명이 집을 싸고 집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한바탕 싸움이 날 때면 후문의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영긴 마음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런저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자취생들도 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자취생활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혼자 남은 집은 무섭기까지 하다.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복도를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화들짝 놀라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배란 다와 창문까지 꼭꼭 잠근다. 또 밥통 속 마른 밥을 퍼서 입안에서 꼭꼭 씹고 있노라면 괜시리 울컥하게 된다. 혼자 떠돌고 있는 TV를 멍삼아도 너무 외로운 것이 혼자 먹는 밥상. 이럴 때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에 따뜻한 밥을 비벼먹고 싶어진다. 현운정(화학공학 3)씨는 “혼자 밥을 해 먹을때나 몸이 아플때면 부모님이 많이 그리워진다”며 “그래도 힘이 돼주는 주변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숙, 푸근한 아주머니의 어머니 같은 사랑

부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이 그리운 이들은 하숙을 하는 것이 좋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해주는 따끈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 끼니를 인스턴트와 외식으로 연명하는 요리 못하는 자취생들은 하숙생들을 부러워한다. 또 하숙은 청소와 빨래를 아주머니가 해주면 경우가 많아 집안일에 신경쓰지 않아서 좋다. 하숙에서는 산티미 같이 쌓인 빨래와 분투할 일도, 코를 찌르는 음식물쓰레기로 울상을 지을 일도 없다. 이와 함께 하숙은 안전을 걱정하는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끈다. 흥흥한 요즘 세상에서 자취생들은 늘 불안을 안고 살지만 하숙생들은 아주머니와 함께 사니 걱정이 없다.

박수빈(중어중문 3)씨는 “부모님께서 자취가 위험할 것 같다고 걱정하셔서 하숙을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아주머니와 함께 사니 안심이 된다”며 “하숙은 통금시간이 없어서 학생생활관보다 자유롭고 자취보다 안전해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숙은 자취와 달리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이 불편하다. 아무래도 주인 아주머니의 집에서 하숙하는 것이다 보니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또 하숙집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 부엌, 냉장고 등을 함께 써야해서 불편한 점도 있다. 특히 아침에는 화장실 대란이 벌어진다. 변비에 걸린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면 참다 참다 울상을 짓고 집밖을 뛰쳐나가는 사람도 나타난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하숙은 집 떠나 외로운 독립생활을 시작한 20대에게 따뜻함을 주는 곳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인 아주머니표 찌개에 행복한 웃음이 흘러 나오는 이곳은 하숙생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다.

고용희 기자

자취의 달인, 알뜰살뜰 생활 노하우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기세, 가스비 잡기
주머니가 가벼운 자취생에게 매달 나가는 전기세와 가스비는 무거운 짐. 안쓰는 콘센트를 뽑아두고, 가스를 쓸 때에는 가스밸브를 1/3정도 잠가둔 채 쓰면 절약할 수 있다.
- 냉동실을 잘 쓰면 식비가 줄어든다
남은 음식은 모두 둔다. 반찬을 조금씩 해두어 남기 마련. 특히 밥술에 남은 밥은 며칠만 지나면 누렇게 눌러 붙어 골칫거리가 된다. 이럴때 남은 반찬과 밥을 비닐팩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좋다. 양파, 다진마늘 등 식재료부터 밥, 국 등 못 얼리는 것이 없다. 단, 충분히 식힌 후 넣어야 전기세가 덜 든다.

‘나의 강정을 지켜줘’ 공연



제주해군기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위한 인디음악이 울린다. 인디음악 레이블 ‘부스뮤지컬레코드(대표 부세현)’가 오는 26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특별기획 공연 ‘나의 강정을 지켜줘’를 진행한다. 공연은 금·토요일에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간드락 소극장에서 100명 한정 유료(2만원)로 진행된다. 일요일에는 강정마을 일대에서 길거리 무료 공연이 펼쳐진다. 실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의 일부는 강정마을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예매=부스뮤지컬 홈페이지(www.boosmusic.co.kr).

노벨상 르 클레지오 강연

제주를 사랑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가 제주를 찾는다. 르 클레지오는 8월 ‘나의 삶과 문학’ 속에 담긴 섬 그리고 제주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문화강좌를 연다. 또 오는 9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올레 18코스를 도민들과 함께 걷는다. 한편, 그는 지난 2008년 제주4.3의 역사와 제주해녀 등 제주의 정신에서 자신의 정신적 모태이자 문학적 고향으로 여기는 섬 모리셔스 공화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기행문을 유럽 최대 잡지인 [GEO]에 게재했다.



제8회 제주수채화협회전

제8회 제주수채화협회전이 오는 15일부터 4일간 문화예술평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주의 맑은 자연환경을 투명하게 담아낸 수채화 30여점이 전시된다.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절정원-항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 동경/후지산 4일
제주-나리타-외쿠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꾸거리
- 오사카/나라/교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각로-야류-양명산온천-국립고궁박물관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양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바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산한폭포-따알화산-히든벨리

인도

8일
인도/겐지스
제주-인천-델리-겐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제주-인천-하노이-하롱베이선상유람(세계문화유산)-펄픽

지중해

8일
터키/그리스
제주-인천-이스탄불-에페소-파묵갈레-안탈라카-파도키아-아테네

캄보디아

5일
캄보디아/앙코르와트
제주-인천-씨엠람-앙코르와트사원-톤레삽호수-암살라민속디너쇼

태국

8일
방콕/파타야
제주-인천-방콕-수상촌-왕궁-파타야-산호섬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 미중부
- 미서부
- 케나다

유럽

- 서유럽
- 동유럽
- 북유럽

하나투어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정밀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 - 4693 - 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가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